중곡동성당 비평 critique
Junggok Catholic Church

보이드의 기호,그 모호한 경계

The Sign of Void: the Solid/Void Ambiguity

구영민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Koo Young-Min

오늘날 '신앙(worship)'은 도시사회의 기초기능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정착하게 되었으며, 근본적으로 건축의 기념비성, 상징성을 토대로 기존의 도시 컨텍스트로부터 개념적인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물리적인 동질성을 내포해야하는 건축인자로서 도시 공간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종교건축(특히 교회건축)은 현대도시에 대해 건축이 가지는 근본적인 패러독스, 즉 실재와 허구의 상호관련성, 기념비성과 이에 대한 지각적 의미의 결핍, 그리고 자연(영원성)과 일시성과의 대립까지 반영해야 하는 짐을 지게 된다.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권위나 중심으로서의 신앙적 의미보다는 도시의 야경 속에서 명멸하는 빨간 네온의 십자가들이나 어중간한 첨탑들을 통해 미친 듯한 현대도시 속에 가입된 시그널(semaphore)이나 무의미한 기호 정도로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설사 건축가가 새로운 조형으로 거창한 교회양식을 재현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오늘날 도시 속에 수태되는 또 다른 형태의 기호가 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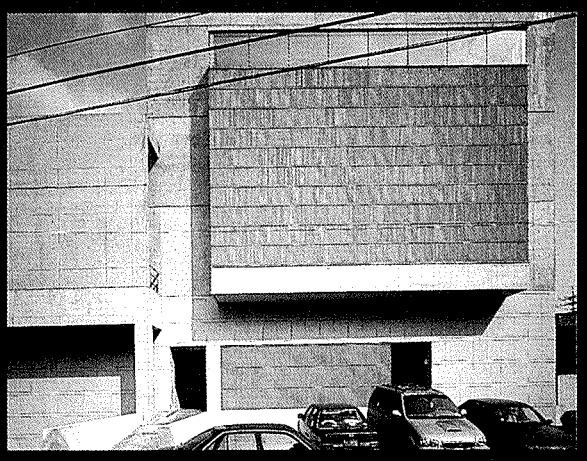
그런 면에서 중곡동 성당은 현대 도시 속에서 교회가 가지는 종교적 권위와 기존의 컨텍스트에 대한 관심을 적절하게 표명하고 있는 편이다. 비록 도시에 기록된 또 하나의 '승효상' 표 건축이라 할지라도, 여기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제도(制度)적인 대용 물(제도로부터 파생되는 몰 개인화와 비인간화에 대한 양식 적인 대상)을 그의 매너리즘 안에서 찾겠다는 일종의 전략이 우연하게 적중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적어도 그의 이전 건물들에서보다는 종교적인 면에서, 그리고 도시의 일상에 대한 측면에서 승효상이 극구 주장하는 '빈자..."와 "어번 보이드"의 역할이 좀 더 명석(明晳)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당신의 옷자락은 어두우면서도 눈부시게 빛납니다.... 밀튼〈실락원 III, 380〉

1. 층화(層化)된 보이드

이 건물은 입면에서 보다는 평면에서 프로그램의 의미가 좀더 정확하게 읽혀진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예를 들어, 이 성당이 소속된 한 블록을 형상과 배경의 평면(figure/ground plan-이하 F/G plan)으로 그려본다면, 중곡동 성당의 족문(足紋-footprint)이 주변의 맥락을 얼추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물의 형상은 자체의 형태보다는 주변의 배경을, 독자적 특성보다는 주변의 도시 조직을 더 강조하고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은 좁은 범위에서의 맥락적 작업(Contextualism)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주변의 맥락(상황)으로부터 형태를 도출하고, 기존하는 주변의 질서를 차용하여 새롭지만 익숙한 형상을 만들어 맥락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띠고 있다. 따라서 이 건물이 기념비적인 객체로서 읽혀지게 되는 요인은 오로지 그 건물 자체가 가지는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다.

좀더 넓은 의미에서 이 F/G plan이 제시하는 의미는 더욱 깊다. 이 지도에서는 형상과 배경간의 현상학적(現象學的)측면, 즉 단순히 건축과 도시, 또는 공간과 물체를 인지하는 것을 넘어 Solid/Void의 역동적(逆動的)인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대지 안에서는 고형부와 공허부 중 어느 것도 상대적인 지배 성을 갖지 않고, 두 가지 양상의 볼륨이 거의 같은 비율로 조합되어 있



으므로 대지자체의 개념이 매우 역동적(逆動的)이며 그들의 역할이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임을 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형 적인 매스들에 의해 둘러싸인 열린 공간이 1차 적인 이미지로 부각되는 상 마르코(San Marco)광장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시 말해서, 그 빈 공간(네거티브 또는 배경)은 주변의 강한 윤곽선을 통하여 주변에 대해 아주 중요한 형상(figure)으로서 인식되어 진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 건물에서는 그 동안 그의 건물에서 애매하게 소비되었던 보이드의 쟁점이 좀더 명료해지고 있다. 대지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보이드는 놀리(Nolli)의 로마지도에서 보여지는 검게 칠해지지 않은 건물들의 평면, 특히 판테온의 단편(Pantheon Segment)과 같이 도시공간을 재조명하게 해주는 중대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 보이드는 성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주변의 문화적 도시문맥과 차별화 시키며, 사적공간과 공공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벽'의 역할을 함으로써 내부와 외부를 재분(再分)하는 개념적인 포쉐(Poche)[1]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가로와의 연계를 통해 성당의 영역을 도시로부터 차단하는 동시에, 반쯤(semi-)연결하는 매개 공간으로 쓰여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도시의 가로가 내부로 침투하는 확장된 외부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도시에 대하여는 성당공간의 연장으로도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공간을 구성하는 벽, 천장, 바닥 등의 제 역할이 전이되면서 '형상과 배경'이 지속적으로 상호 교체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즉 이러한 결정인자들은 우리 인식의 영역 속에서 오브제로서 형상의 역할을 느끼게 해주는 반면, 벽이나 바닥에 의해 조성되는 공간의 볼륨은 벽이나 바닥 등이 이루는 場(ground)위에 형성되고 있는 하나의 형상(Figure)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브라만테(Bramante), 라이트(F.L.Wright), 칸(Louis I. Kahn)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벽의 양면성,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로렌시안(Laurentian)교회, 또는 꼬르뷔제의 롱샹성당과 라뚜레뜨에서 읽혀지는 공간과 매스의 모호한 관계, 즉 형상과 배경(F/G)의 양면을 교차적으로 소유하는 공간을 접하게 된다.

2. "Chora"로서의 보이드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공허부는 특별히 형상(Idea)으로부터 물질(reality)로의 전이를 중재해주는 수용자(receptacle)적 공간, 즉 코라(Chora)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보이드와 도시의 관계 속에서 성차별 화된 공간을 인지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성/남성/도시'와 '육체/여성/집'의 이분론적 공간공식(남성에 의해 체계화된)을 읽어낼 수 있으며, 중정의 성모 마리아 상과 거리와 면한 입구부분의 성 요셉 상을 통해 이러한 성차(性差)공간 구성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서구 남성 중심적 시각문화 속에서 신화적 여성상의 하나로 각인(刻印)되어 온 성모 마리아 상의 적극적인 개입은 이 공간을 유년기 기억의 모체로서, 안락함과 부드러움의 안식처로서 장소 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성모 마리아 상은 이 공간을 엄숙한 기도의 공간

1) 에콜 드 보자르에서는 내부공간의 틀과 외부의 껍질 사이에 형성된 사람이 없는 공간의 틈새기를 포쉐(Poche)라 명명하였고, 알토(Alvar Aalto)는 이러한 공간을 그의 중요한 건축 원리로 발전시켰다. 벤추리는 '답면상'의 포쉐를 건물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매개공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포쉐에 대한 재정의를 통하여 구조 · 공간 및 형태가 등일시되는 근대 건축과 대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당으로 향한 계단의 지배적 이미지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플라톤이 왜곡했던 기능적인 통로로서의 코라의 의미를 해체하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전체 구성에서 이 보이드는 이데아와 현실의 간극을 뛰어넘게(또는 중재)하는 의미론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정을 차지하는 계단은 단순한 통로로서가 아니라, 신성에 대한 특수 형이상학적 해석으로 볼 수 있으며 마리아 상은 그러한 공간에서 장소의 본질을 깨우치게 해주는 표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공허부는 기능적인 면, 즉 공동체를 위한 모임의 장, 또는 통로의 측면을 가질 뿐 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를 통한 장소'의 발견을 함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세속과의 절대적인 단절을 의도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누구나 들어 올 수 있도록 배려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공허부와 계단을 통해 신성함의 절차를 보여주는 일종의 차단 막이며, 기존의 가로를 구성하는 형상과 배경의 지도에서 판테온의 세그먼트로 인식되는 공간의 벽인 동시에 실질적인 형상(figure)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보이드는 모든 절대성과 중심의 개념을 거부하는 "실체적인 공허부"이며, 그야말로 승효상의 작업 속에서 본질적인 패러독스로 각인 되어져야 할 무엇이다.

3. solid/void 다이얼로그(Dialogue)

반면 입구에 서 있는 성 요셉 상은 '이성/남성/도시'의 남성적 잣대를 상징하며 '승효상'의 건축을 '장식된 헛간'(Decorated Shed)으로 재조명해준다. 이 작은 제스추어 속에서 라스베가스의 풍경, 다비따시옹 벽에 부조된 모듈라 상, 그리고 불레의 국립도서관 입면에 대한 패러디를 읽어낼 수 있다. 이는 비 물질화된 콘크리트 벽에 대한 일종의 장식으로서 일차적으로 공간 및 구조체계와 독립하여 건물의 목적을 알려주며, 성서적으로는 신성과 세속을 구분하는 '문설주'[2]의 의미를 담아 성서적 사건을 기념하는 '머릿돌'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공간적으로 이 작은 물상은 세속으로부터 신성한 영역으로 통하는 '보이지 않는 문'의 경첩(hinge)과 같으며, 6층이나 되는 밋밋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거리에 던지는 공포를 감소시키는 안정제(tranquilizer-평강의 뜻을 내포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는 작은 것과 거대함의 비교체계를 통하여 건축적 대화(dialogue)를 이루게 함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건축적 통일체(unity)를 성취하기 위한 디자인 전략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이얼로그는 건물의 뒷면, 즉 주거 군을 향한 입면에서도 나타난다. 중곡동 성당 역시 서울의 전형적인 단위구획정리에 짜 맞춰진 건물이기에 당연히 전면의 공공적(institutional)스케일과 후면의 사적(residential)스케일을 동시에 반영해야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건축가는 여기서 벽이 만들어 내는 영원한 관계, 즉 안과 밖, 앞과 뒤, 그리고 관통(through)이라는 조건을 역설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중정의 계단과 만나는 넓고 거대한 벽을 관통하는 작은 발코니가 그것이다. 이 작은 발코니는 도시로부터 끌어올린 계단을 확장시키면서 벽의 의미를 중립적인 상태로 환원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벽의 뒷면은 '안정과 긴장의 동

2) 성경 출애굽기 12:7을 참고할 것

시적 순간' 이 '통과의 순간' 으로 전이되는 찰나를 기념하는 활인화(活人 -tableau vivant)가 된다. 즉, 존 헤이덕(John Hejduk)의 벽 집(Wall House)에서와 같이 이동의 순간이 고조되는 것과 동시에 벽의 얇은 속성이 순간 성을 강조하면서 벽이면(壁裏面)의 이면(異面)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4. paradox, parasite, paradise

이제까지 승효상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중정' 공간은 그것의 스케일을 막론하고 아직은 환기적이고 도발적인 힘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읽혀지지 못했다. 식상한 얘기로 바람, 비, 눈, 그리고 하늘의 이미지를 담아내는 일종의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의도는 매우 추상적이며 서정적으로 위장될 뿐이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이 된다면, 이러한 중정은 자연(나무나 풀이 아닌 절대적 추상으로서)의 세계를 무형, 무정형의 형상으로 명시하거나 표명하게 해주는 구실이 되어야 한다. 즉, 메마르고 야수적인 외부세계로부터 자연이라는 대우주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이는 자연을 주거의 영역으로 한정하여 들여다보게 하여 실리적이고 유물론적인 인간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가능성을 던져주어야 하는 것이다.

중곡동성당에서 중정은 덧없고 일시적인 도시생활 속에 자연의 영원성을 삽입하여 획득되는 패러독스 적 쾌락을 통해 종교의 또 다른 측면을 경험하게 해주는 장소가 되고 있다. 위기 속에서 느끼는 피상적 시상, 또는 시적 영감이 가져다주는 이 기묘한 패러독스. 그것은 어떻게 자연의 전체성이 그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파편 화되는가를 보여주며, 영원성과 일시성에 대한 기념비로서의 교회건축을 유지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승효상의 건축이 중곡동성당에서 단순히 꼬르뷔제나 칸의 콘크리트와 빛, 그리고 조형에 의지하여 신앙적 체험으로 읽혀지기에 앞서, 그리고 이렇게 강하고 격렬한 보이드를 우리 식 "마당" 으로 위장하여 도시 속의 건축, 건축 속의 도시라는 소극적인 이해를 도모하기에 앞서, 오늘날 획일화되고 단명한 도시구획 속에 삽입되는 우리네 건축에서 보이드의 역할과 벽, 그리고 그 틈새공간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그 공간적 어휘를 새롭고 풍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현대도시에 기생(parasite)하게 된 종교건축의 패러독스 적인 작업을 통해 승효상의 "빈자의 미학" 이 패러다이스의 기막힌 장면을 연출하게 되기를 고대하는 바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성경 마태복음 5:3